

사람 눈같은 카메라 필터로 스마트폰 넘어 자율차 진출

코스닥스타를 찾아서

4 옵트론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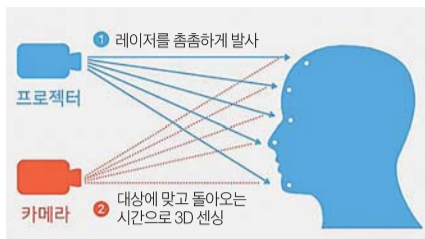
매출 83% 스마트폰 카메라 필터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모델 전·후면에 '밴드패스 필터' 적용 자율차 한대에 10개 카메라 필요 글로벌 특 업체들과 협력 준비중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이 사람의 뇌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춰 카메라는 주변 환경을 단순히 기록하기 위한 '촬영'용 기기에서 이를 '인지'하기 위한 기기로 변모했다. 옵트론텍은 인지하는 카메라를 위한 3D 센싱용 밴드패스 필터분야 1위 기업이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옵트론텍은 카메라 하나에 집중해 성장한 기업이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용 필터와 렌즈 분야에 특화돼 있다. 촬영에서 인지로, 카메라 역할 변화에 발맞춰 기술을 키웠다.

최근 스마트폰은 전·후면 듀얼카메

<3D 센싱(ToF*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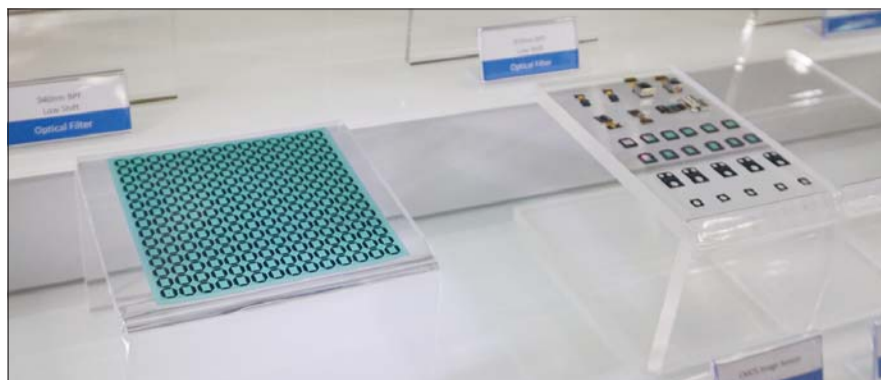


라 시대를 넘어 원근 조절, 생체인식, 보안 등을 위해 트리플, 쿼드 등 멀티카메라 시대를 맞이 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매출만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섰다. 옵트론텍은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 자동차까지 사업을 넓힐 계획으로 다음 30년을 준비한다.

◆스마트폰 카메라용 필터 세계 1위

옵트론텍은 카메라 필터와 렌즈를 만드는 광학 전문기업이다. 특히 전체 매출의 83%가 스마트폰 카메라용 필터 관련 사업에서 나온다. 필터로 빛의 파장이나 과장 범위를 걸러내 카메라가 사람의 눈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물을 촬영할 수 있다. 나머지 매출은 빛의 초점을 모아 분산시키는 렌즈와 빛의 양을 조절하는 가변조리개(IRIS) 등에서 나온다.

옵트론텍은 2001년 국내 최초로 적외선(IR)은 차단하고 가시광선만 투과시키는 'IR필터'를 개발했다. 녹색화 현



옵트론텍은 필름 필터로 0.1mm까지 스마트폰 카메라용 필터 두께를 얇게 만들었다. /옵트론텍

상 및 중심부 주변부 색감 차이를 해결한 '블루필터'도 개발해 2013년 세계 1위 블루필터 기업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옵트론텍은 유리 필터를 사용했다. 하지만 유리 필터는 0.2mm 이하로 두께를 줄일 수 없었다. 스마트폰이 얇아지며 카메라 모듈 구조도 얇아져야 했다. 이에 옵트론텍은 2014년 세계 최초로 0.1mm 두께의 얇고 깨지지 않는 '필름필터'를 개발했다. 2016년부터 관련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내 카메라 수가 확대되면서 옵트론텍의 실적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옵트론텍의 양승대 이사는 "자동 점검 등으로 품질 관리를 철저해 경쟁사에 비해 불량률이 10% 낮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 3D 센싱용 밴드패스 필터 생산

옵트론텍은 국내 유일의 3D 센싱용 핵심 필터인 밴드패스 필터(Band Pass Filter) 생산 기업이다. 3D 센싱은 카메라가 사물을 인지하는 핵심기술이다. 이 기술로 카메라에서 레이저를 쏘아 돌아오는 시간을 기준으로 사물을 인지하는 ToF(Time of Flight) 방식으로 사물을 인지한다.

3D 센싱을 통해 스마트폰의 지문·홍채·안면 인식이 가능하다. 이미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5G' 모델에 옵트론텍의 밴드패스 필터가 들어가 있다. 현재 갤럭시 S10 5G 모델 전면과 후면에 각각 한 개의 밴드패스 필터가 적용됐지만 향후 2~3개 카메라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밴드패스 필터는 일반 필터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고가 제품이며 올해 옵트론텍 실적을 견인할 제품으로 꼽힌다.

3D 센싱은 스마트폰은 물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보안카메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 업계는 3D 센싱 시장이 최소 4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한다.

양승대 이사는 "밴드패스 필터 시장은 이제 개화기에 들어섰기에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D 광학 솔루션 선도기업'으로

옵트론텍은 지난 6월 28일 옵트론텍 창립 30주년에 맞춰 '3D 광학 솔루션 선도기업'이라는 비전을 선포를 했다. 5G 시대에 맞춰 인간 중심에서 사물과 사람의 초연결 시대에 맞춰 중요한 카메라 '인지' 역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옵트론텍은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인지하는 카메라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스스로 주변을 인식하고 사고가 나지 않게 운행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드 미러, 백미러 등 자동차 전 영역에 사람의 눈과 같은 카메라가 달려야 한다. 옵트론텍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한 대에 약 10개의 카메라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카메라 전체에 밴드패스 필터가 들어가야 하기에 옵트론텍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을 이를 준비하고 있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metroseoul.co.kr

청호나이스 '이과수 살균 정수기 세니타' 출시

청호나이스는 싱크대 위에 올라가는 카운터탑 냉온정수기 '청호 이과수 살균 정수기 세니타'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살균정수기 세니타'는 지난 5월 출시한 '살균 얼음정수기 세니타'에서 얼음 기능을 제외한 제품으로 정수 4.6L, 냉수 3L, 온수 0.57L의 넉넉한 용량을 갖춰 물 소비량이 많은 여름철에 적합한 제품이다. 특히 유로와 저수조를 살균하는 기능이 있어 위생 걱정이 덜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살균 정수기 세니타'는 정수기의 위생을 강화해 고객의 걱정을 덜어주는 안심 시스템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제품에 적용된 살균기능은 주1회 사



청호나이스 이과수 살균 정수기 세니타와 모델인 배우 염정아.

용빈도가 낮은 시간에 자동으로 전기분해수를 생성해 물이 흐르는 유로를 타고 흘러 저수조 내부까지 유입돼 안전하게 살균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우수中企 해외 진출 돕는다

기술교류 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하반기 해외기술교류 상담회 참여기업을 이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기술교류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기술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가의 기술 진단, 기술 수요가 있는 해외 기업 발굴·매칭, 계약과 투자 지원 등 해외 기술교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번 해외기술교류 상담회는 국내 기술의 수요가 높은 신흥국인 페루 리마에

서 9월16일부터 2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9월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한다.

자체 기술력을 보유해 기술이전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은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기업과 매칭상담, 통역, 현지차량 등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상담회 이후에는 시험 인증, 수출 서류 대행 등 후속지원도 실시한다.

올해는 기술수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현지 업체와 계약 협의의 진행단계부터 자문, 통·번역 등 상시 기술교류 지원을 강화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정액제 수수료' 전면 폐지

중기벤처부·공영홈쇼핑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 발표

제품 100% 완판 안돼도 홈쇼핑-공급사, 손실 공유

공영홈쇼핑이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 처음으로 홈쇼핑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재고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방송 3회'도 보장한다.

중소기업 협력사와 이익공유에도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TV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이날로 방송을 시작한 지 꼭 4년째가 됐다.

우선 공영홈쇼핑은 정액제 수수료를 모두 폐지하고, 정률제 판매수수료율을 100% 적용하기로 했다. 정액제 수수료란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가 지난 10일 '홈쇼핑 공정 경제 모델'을 발표하고 있다.

TV홈쇼핑을 위해 준비한 제품을 모두 판매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따른 부담을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정률제는 위험을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공유하는 방식이어서 제품 공급 기업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판매방송 최초 3회'도 보장하기로 했다. 최초 방송 시점을 기준으로 3회 방송 기회를 제공해 제품을 충분히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재고 부담

도 완화해주기 위해서다. 다만 재고가 없는 등 공급업체가 방송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엔 제외한다.

성과공유를 위한 모델도 새로 도입한다. 분기별로 취급액이 20억원을 도달하면 협력이익을 나누는 것이 골자다. 공급업체에게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해 주고, 판촉 프로모션 비용 지원 등을 통해서다. 또 전문가가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마케팅과 디자인 코칭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V-커머스'도 적극 도입한다.

최창희 공영홈쇼핑대표는 지난 10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생존을 위해선 콘텐츠와 비즈니스 등이 다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홈쇼핑사들이 전부 V커머스에 빠져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이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끌듯 TV홈쇼핑도 TV에서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공략해 소비자들과 점점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부 '서울특화형' 수출바우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지방청별로 차별화된 수출지원사업인 '서울특화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은 수출규모에 따라 성장단계별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온라인 마케팅 등 해

외진출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경우 지원대상은 전기·전자 제품 중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군에 속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내수기업이나 또는 전년도 수출 10만 달러 미만인 서울지역 중소기업으로 창업 3년 이상, 7

년 이하 기업이 대상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통번역,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등 중기부의 수출바우처 지원사업과 같다. 다만 서울특화형의 경우 해외규격인증, 해외전시회, 온라인마케팅 등 직접적인 해외마케팅에 제격이다.

/김승호 기자